

嚴昕의 詩에 나타나는 海東江西詩派의 특징

엄 찬 영*

차 례

1. 머리말
2. 拗體와 奇字의 단련
3. 시어의 확장
4. 시의 산문화
5. 맺음말

| 국문초록 |

嚴昕이 36세의 짧은 삶을 살다간 16세기 조선 文壇에서는 朴間, 李荇, 鄭士龍, 盧守愼 등의 시인이 ‘海東江西詩派’라는 하나의 유파를 형성하며 활발한 창작 활동을 벌였다. 1539년 봄에 명나라에서는 황태자 탄생을 알리는 使臣團을 조선에 파견했고, 곧이어 5월에 태자 책봉을 알리는 進賀使를 파견했다. 당시 엄흔은 遠接使 蘇世讓의 從事官으로서 蘇世讓과 宣慰使 申光漢 등이 사신단 일행과 수창한 시에 차운하여 시를 지었는데, 이 작품들이 그 문집인 『十省堂集』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엄흔의 시는 당대인들에게 누차 높은 평가를 얻은 바 있으나 오늘날의 韓國漢詩史에서는 뚜렷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엄흔의 詩에는 海東강서시파의 특징인 拗體에서의 三平聲과 助辭를 통한 奇字 단련, 人名과 典故를 통한 시어의 확장, 일상생활의 소재로서의 시의 산문화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엄흔의 시는 海東강서시파 시의 특징을 충실히 갖춘바, 엄흔은 海東강서시파 시인의 범주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핵심어 : 海東강서시파, 차운시, 三平聲, 典故, 시의 산문화

* 조선대학교

1. 머리말

嚴昕은 조선 中宗 때 문신으로 字는 啓昭, 號는 十省堂¹⁾이다. 16세기 前後의 韓國 漢詩史는 蘇軾의 시풍에서 黃庭堅, 陳師道, 陳與義 등 江西詩派의 시를 학습하려는 풍조 등 다양한 詩壇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 시기 朴闇, 李荇, 鄭士龍, 盧士慎 등의 시인들이 활동하였는데 우리는 이들을 ‘海東江西詩派’라고 부른다.

해동강서시파의 시인들은 그 시기 치열해진 士禍로 정치를 내려놓고 때로 유배지에서 江西詩派의 시풍을 학습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정치적 좌절을 겪으면서 安分과 체면의 생활을 奇異하고 切迫하게 표현하고 있는 강서시파의 시풍을 선호하였다.

엄흔은 이 시기에 태어나 36세의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러 사람들로 부터 문학적 찬사를 받았다.²⁾ 그리고 그 시대 문학을 대표할 만한 成世昌, 蘇世讓, 宋純, 林億齡, 崔演, 林亨秀 등과 詩의 교류를 하였다.

지금까지 엄흔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시에 나타난 현실인식을 중심으로 작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논의한 권혁명의 논문이 유일하다.³⁾ 그러나 이 연

1) “嘗以十省堂自號，其目曰：毋放言，毋傲行，勿耽酒，勿近色，無毀譽，無喜怒，待人厚，作事寬，勤公職，棄家事。”(洪春卿，〈朝散大夫守弘文館典翰知製教兼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官嚴公碣文〉，嚴昕，『十省堂集』下，附錄，7쪽.)

2) 엄흔이 그 시대 문학적 찬사를 받았던 근거는 다음과 같다. “爲詩文雅健圓麗。”(李潏，〈誌銘〉，『十省堂集』下，附錄，12쪽.) “爲文章蹕有遠趣。”(洪春卿，〈朝散大夫守弘文館典翰知製教兼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官嚴公碣文〉，『十省堂集』下，附錄，4쪽.) “〈次石川韻〉，評氣超語。”(許筠，『國朝詩刪』，아세아문화사，1980. 『十省堂集』에는 〈次石川韻〉이 〈又次大樹韻〉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爲文，典重簡古 一時儕輩論文章之秀，宜爲後日典文衡者，咸以公爲先登。”(洪春卿，〈朝散大夫守弘文館典翰知製教兼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官嚴公碣文〉，『十省堂集』下，附錄，6쪽.)

3) 권혁명, 「十省堂 嚴昕의 詩世界」, 『東洋古典研究』 第49輯, 東洋古典學會, 2012, 138쪽 참조. 한편 이 논문에서는 그동안 엄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 시기의 연구가 대부분 박상, 소세양, 송순, 이황, 임억령 등 유명한 인물들에만 집중되기도 하였거니와 엄흔이 35세로 단명하였기 때문에 위의 인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엄흔의 문집이 현재까지 번역되지

구에서는 엄흔 시의 형식적 특징 및 엄흔과 해동강서시파의 연관성이 논의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엄흔의 시에서 나타나는 형식적 특징이 해동강서시파 시의 특징과 연관되는바 그 연관성이 서로 같은 범주에 있음을 고찰하려고 한다. 특히 해동강서시파 시의 대표적인 특징으로서 拗體와 奇字의 단련, 시어의 확장, 시의 산문화를 엄흔은 그의 시에서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엄흔이 韓國漢文學史에서나 해동강서시파 시인의 範疇에서 再照明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周知해 보려고 한다.

2. 拗體와 奇字의 단련

海東江西詩派⁴⁾는 宋代 江西詩派가 杜甫의 시에서 拗體를 지적하는 것처럼 율격적인 면에서의 拗體를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강건한 느낌을 구사하는 拗體를 시의 작법으로 삼아 시어의 彫琢에 힘쓰며 동사의 鍛鍊으로 주어나 목적어에 쉽게 연결되지 않는 서술어를 사용하여 긴장감과 참신성을 확보하고 있다.⁵⁾

않았던 점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권혁명, 같은 책, 140쪽.)

- 4) 필자가 해동강서시파 시인의 범주에 대하여 고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태준은 朴闇, 李荇, 鄭士龍, 盧守愼, 朴祥, 成倪, 申光漢, 黃廷彧을 해동강서시파라고 규정하였다.(김태준, 『朝鮮文學史』, 『朝鮮語文叢書』, 朝鮮語文學會, 1931.) 이가원은 朴闇과 李荇만을 해동강서시파라고 규정하였다.(이가원, 『韓國漢文學史-韓國漢文學思潮研究』, 보성문화사, 2005, 188쪽 참조.) 민병수는 朴闇과 李荇, 鄭士龍, 黃廷彧 등을 해동강서시파로 규정하였다.(민병수, 『朝鮮前期의 漢詩研究』, 『漢文教育研究』 第1輯, 韓國漢文教育學會, 1986, 57쪽 참조.) 그러나 조희창은 鄭士龍, 盧守愼, 黃廷彧은 ‘學唐詩人’으로 구분하였다.(조희창, 『蘇齋 盧守愼의 詩文學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78쪽 참조. 또한 정재현은 申光漢의 문학사적 의의를 논의하면서 唐시풍 渡來의 場을 열어주었다고 하였다.(정재현, 『企齋 申光漢의 研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85~87쪽 참조.)
- 5) 이종묵, 『海東江西詩派研究』, 태학사, 1995, 363쪽 참조. 뿐만 아니라 해동강서시파의 이해를 위해 江西詩派의 漢詩作法의 수용과 변용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일반적인 해동강서

拗體는 근체시의 平仄 配列에 있어서 平聲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仄聲이 자리하거나, 仄聲의 자리에 平聲이 자리하여 시의 참신성을 얻는 방법을 말한다. 그 중 가장 많이 구사되는 拗體의 한 형태는 율시에서 各 聯 上句의 제5자(五言에서는 제3자) 平聲의 자리에 仄聲을 두어 拗하고, 下句의 제5자(오언에서는 제3자) 仄聲의 자리에 平聲을 두어 拗하는 방법이다.

엄혼의 次韻詩⁶⁾ <次申宣慰韻>를 시작하여 그의 『十省堂集』의 시 중에서 해동강서시파 시의 대표적 특징으로 거론되는 拗體와 奇字의 단련이 나타나고 있는 작품은 모두 40여 수이다.⁷⁾ 필자는 그 중 몇 작품을 예시로 들어 拗體와 奇字의 단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 | |
|---------------------|--------------------|
| 客裏又佳節 | 객중에서 게다가 좋은 계절에 |
| 無花還自傷 | 꽃이 없으니 절로 마음 아프네. |
| 關雲帶昏黑 | 변방의 구름은 어두컴컴하고 |
| 海日弄曛黃 | 바다의 해는 황혼을 희롱하네. |
| 一與故山別 | 한번 고향 산천과 이별하니 |
| 空懷征路長 | 쓸쓸히 가는 길 길게만 느껴지네. |
| 消愁須好句 | 향수를 없애려 좋은 시구 기다리며 |
| 時復染毫芒 ⁸⁾ | 가끔 붓 끝을 적시어 보네. |

시파 시의 특징으로 拗體의 시도, 奇字의 단련, 시어의 확장, 句法의 변화, 典故의 활용, 의경의 안배를 거론하고 해동강서시파의 범주에 있는 朴聞, 李荇, 鄭士龍, 盧守愼, 林祥, 黃廷彥의 시를 예로 들어 상세하게 논의 하였다.(이종목, 같은 책, 35~168쪽 참조.)

- 6) 엄혼의 차운시는 1539년 2월 명나라 황태자 탄생을 알리기 위해 명나라에서 龔用卿을 正使로 하여 90여 명의 사신단을 파견했고, 그해 5월 황태자 책봉을 알리기 위해 華察을 正使로 한 사신단을 파견했다. 당시 엄혼은 遠接使 蘇世讓의 從事官으로서 成世昌, 宋純, 申光漢, 崔演, 林亨秀 등과 함께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임무를 맡았다(『中宗實錄』, 중종 34년 2월 5일 및 5월 3일조 참조.) 그 당시 명나라 사신과 조선의 신하들이 수창한 시에 대해 엄혼이 차운해 지은 시를 말한다. 단 본고에서는 이 중 해동강서시파 시인의 범주에 있는 企齋 申光漢의 시를 차운한 시만을 인용하여 예시로 삼았음을 밝혀 둔다.
- 7) 필자가 『十省堂集』의 시 314題 460首를 분석한바 엄혼의 시에서는 해동강서시파 시의 대표적 특징으로 거론되는 ①요체와 기자의 단련 41首, ②시어의 확장 55首, ③시의 산문화 26首로 각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8) 엄혼, <次申宣慰韻>, 『十省堂集』上, 69쪽.

<次申宣慰韻>은 平聲 韻字 30자 중 下平聲 7번째 ‘陽’의 韻字를 사용하여 지은 申光漢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근체시 五言律詩에서는 일반적으로 수련, 함련, 경련의 上句 제3자가 평성의 자리이다. 그러나 <次申宣慰韻>은 수련, 함련, 경련의 上句 제3자의 자리에 각각 측성의 ‘又’자와 ‘帶’자와 ‘故’자를 사용하여 拗體를 보이고 있다.

한편 수련의 上句 ‘又’자는 拗體와 함께 助辭를 사용한 奇字의 단련⁹⁾ 형태로 시의 산문적 어투를 강하게 하고 있다.

| | |
|---------|-------------------------|
| 天邊佳節三月三 | 좋은 계절 삼짱날 하늘가에서 |
| 忽憶故園花水酣 | 문득 고향의 도화수 단술 생각나네. |
| 眼中歡樂已全少 | 눈에 선한 환락 이미 다 사라져가니 |
| 客裏情懷寧久堪 | 여행 속에 회포를 어찌 오래 견디랴. |
| 空餘茶碗睡頻破 | 남은 찻잔으로 밀려오는 졸음 자주 깨우고 |
| 縱有酒兵愁未戢 | 술이 있을지라도 우수는 이기지 못하겠네. |
| 極目長洲芳草色 | 눈을 다하여 긴 강가 꽃다운 풀빛 바라보며 |
| 春心江北與江南 | 강남과 강북의 봄 마음을 보네. |

| | |
|------------------------|-------------------------|
| 驛亭深處梅一樹 | 역의 정자 깊은 곳 매화 한그루에게 |
| 爲問南枝花未花 | 남쪽 가지는 꽃이 피었는가 물어보네. |
| 寒暄氣候仲季月 | 차고 따뜻한 기후 두세 달 |
| 煙雨開殘三四葩 | 안개비에 서너 꽃봉오리 살포시 피었네. |
| 異域山川殊未好 | 타향 산천은 유달리 좋아지지 않았지만 |
| 故園筍蕨應已芽 | 고향 죽순과 고사리 응당 싹이 돋았겠네. |
| 鄉情羈思兩無極 | 고향의 정과 나그네 생각 둘은 끝이 없고 |
| 吟罷公詩雙鬢華 ¹⁰⁾ | 당신의 시를 다 읊으니 두 살쩍 무성하네. |

9) 이종묵은 해동강서시파의 奇字의 단련을 다음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술어를 중심으로 평이한 글자를 기이하게 단련하고 있다. 둘째, 助字의 사용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궁벽하고 어려운 글자를 사용하고 있다.(이종묵, 앞의 책, 53~55쪽 참조.)

10) 엄흔, <三月三日 次申宣慰韻>, 『十省堂集』下, 67쪽.

<三月三日 次申宣慰韻>의 앞 시는 平聲韻字 30자 중 下平聲 13번째 ‘覃’의 韻字를 사용하고, 뒤의 시는 하평성 6번째 ‘麻’의 韻字를 사용하여 지은 申光漢의 시 <三月三日>¹¹⁾에서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엄흔은 이 시에서 머나먼 객지에서 삼진날을 맞이하고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자신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근체시 七言律詩에서는 일반적으로 함련과 미련의 上句 제5자가 평성의 자리이다. 그러나 <三月三日 次申宣慰韻>의 앞 시에서는 함련의 上句 제5자 평성의 자리에 측성의 ‘己’ 자를 사용하여 拗體와 함께 助辭를 사용한 奇字의 단련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뒤의 시에서는 함련과 미련의 上句 제5자 평성의 자리에 각각 측성의 ‘仲’자와 ‘兩’자를 사용하여 拗體를 통한 울격적인 면에서의 참신한 맛을 보여주고 있다.

| | |
|------------------------|--------------------------|
| 六七年間事可悲 | 육 칠 년 사이의 일은 슬퍼할만 하니 |
| 浮萍聚散本無期 | 본래 기약 없이 부평초처럼 만나고 헤어졌네. |
| 重來樹木渾依舊 | 다시 고향으로 오니 다 예전 같으나 |
| 只欠荊花第二枝 ¹²⁾ | 두 번째 가지에 가시 꽃만 모자라네. |

<重遊成仲玉園林>은 엄흔이 成守琛과 잠깐 헤어져 지내다가 다시 고향에서 만나 교유하게 되었는데 그의 동생이 죽고 없음을 아쉬운 마음으로 노래한 시이다.

근체시 七言絕句에서는 일반적으로 起句 제5자가 평성의 자리인데 <重遊成仲玉園林>은 측성의 ‘事’자를 사용한 拗體를 통하여 울격적인 면에서의 참신한 맛을 더해주고 있다.

11) “清明寒食又三三，佳節相仍客與酣。老子風流元不淺，諸公鋒穎儘難堪。江山好處詩爲壘，罇酒開時戰必戡。可笑蹉跎空殿後，醉聞飛旆渡江南。”(申光漢, <三月三日>, 『企齋集』 권 6, 한국문집총간 제22집, 457쪽.)

12) 엄흔, <重遊成仲玉園林 名守琛>, 『十省堂集』上, 84쪽.

한편 <重遊成仲玉園林>에서 起句의 제6자 ‘可’ 자와 承句의 제5자 ‘本’ 자와 結句의 제1자 ‘只’ 자는 助辭를 사용한 奇字의 단련으로 시의 산문적 어투를 강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인의 아쉬운 마음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 |
|------------------------|----------------------------|
| 交義曾同骨肉親 | 사귀는 의리 일찍이 형제의 친함과 같았는데 |
| 白頭那得更如新 | 늙었다고 어찌 다시 새로운 것처럼 하랴. |
| 酒錢屢乞蘇司業 | 소사업은 술과 돈을 자주 빌려주었고 |
| 仙譜時傳呂洞賓 | 여동빈은 선보를 때때로 전하였네. |
| 衡字獨留彭澤徑 | 돌아가려는 마음은 팽택현 오솔길에 유독 머물고 |
| 漁舟閑鎖武陵春 | 고기잡이배는 무릉도원 봄에 한가로이 갇혀 있네. |
| 病多轉覺深情在 | 병이 많아 깊은 정 있음을 아는데 |
| 誰道相疏是故人 ¹³⁾ | 누가 이 친구가 소원하다고 하는가. |

<身雖病而心自如, 非吟詠性情, 無以鑷除沈痛, 消遣長日, 復步親字韻, 呈大樹先生, 病中之懷, 君, 豈異於我哉> (몸은 병들었으나 마음은 하고픈 대로 할 수 있으니 성정(시)을 읊지 않고서는 침통함을 제거할 길 없어 여러 날을 소일하다가 다시 뒤따라 ‘친’ 자의 운으로 시를 지어 대수 선생에게 주니 병중의 마음이 그대가 어찌 나와 다르랴)는 제목에서 시인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다.

엄흔은 위의 시에서 자신의 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근체시 七言律詩에서는 일반적으로 함련 上句 제5자가 축성의 자리인데 평성의 ‘蘇’ 자를 사용하여 拗體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수련에서 ‘那’ 자, 경련에서 ‘獨’ 자, 미련에서 ‘是’ 자는 助辭를 통한 奇字의 단련으로 시의 산문적 어투를 강하게 하고 있다.

특히 함련에서는 『杜少陵集』 卷三, <戲簡鄭廣文兼呈蘇司業>에서 廣文館博士 鄭虔의 재주를 아끼어 자주 술과 돈을 빌려 주던 ‘蘇司業’과 중국 신화에

13) 엄흔, <身雖病而心自如, 非吟詠性情, 無以鑷除沈痛, 消遣長日, 復步親字韻, 呈大樹先生, 病中之懷, 君, 豈異於我哉>, 『十省堂集』 下, 29쪽.

나오는 八仙 중의 한 사람인 ‘呂洞賓’의 人名을 사용한 시어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련에서는 쑤나라 陶淵明이 縣令으로 있던 ‘彭澤’의 地名과 그의 <桃花源記>에 나오는 ‘武陵’의 地名을 사용한 시어의 확장으로 시의 景物과 정서를 적절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예시한 시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次申宣慰韻>의 수련 下句의 ‘無花還’과 경련 下句의 ‘空懷征’, 미련 上句의 ‘消愁須’의 평측 배열은 모두 三平聲을 이루고 있다. 또한 <三月三日 次申宣慰韻>의 앞 시에서 수련 上句의 ‘天邊佳’, 함련 下句의 ‘情懷寧’, 경련 上句의 ‘空餘茶’, 미련 下句의 ‘春心江’과 뒤의 시 수련 下句의 ‘南枝花’, 함련 下句의 ‘開殘三’, 경련 下句의 ‘山川殊’, 미련 下句의 ‘公詩雙’의 평측 배열이 모두 三平聲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三平聲 평측 배열의 한시 작법은 해동강서시파 시의 특징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해동강서시파의 대표적 시인으로 알려진 朴闇의 시 <癸丑移舟>의 함련에서 三平聲 평측 배열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¹⁴⁾

해동강서시파의 시에서 奇字의 단련은 助辭와 險僻한 글자를 사용하여 시어를 만드는 데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엄흔의 시에서도 助辭를 사용하는 奇字의 단련과 險僻한 글자를 사용하는 奇字의 단련을 함께 볼 수 있다. 특히 엄흔은 시에서 依태어나 依성어를 표현할 때 險僻한 글자를 사용하는 奇字의 단련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엄흔의 시에서 險僻한 글자로 依태어를 표현한 奇字의 단련 형태를 살펴보았다.

| | |
|-------|-------------------|
| 試上峯頭望 | 백운봉 정상에 올라가 바라보고 |
| 深嗟造化功 | 조물주의 공에 깊이 탄식하였네. |
| 蜿蜒來地北 | 꾸불꾸불 땅의 북쪽에서 와 |

14) “夜雨鳴篷急, 朝雲出壑新. 磨舟石鑿鑿, 腰客魚鱗鱗. 敢有乘桴志, 長懷擊楫人. 夢中過上院, 瞥眼失龍津.”(朴闇, <癸丑移舟>, 『挹翠軒遺稿』卷三, 한국문집총간 제21집, 35쪽.)

| | |
|-------|------------------|
| 磅礴滿天東 | 우뚝우뚝 하늘 동쪽을 채우네. |
| 倒映蓬壺外 | 봉래산 밖을 거꾸로 비추고 |
| 支撐斗極中 | 북두칠성 가운데를 지탱하네. |
| 無由識遠近 | 멀고 가까움은 알 수 없지만 |
| 一氣但鴻濛 | 한 기운은 천지 원기뿐이네. |

| | |
|----------------------|--------------------|
| 三峯天外立 | 세 봉우리는 하늘 밖에 서 있고 |
| 一寺寄其巔 | 한 절은 그 꼭대기를 기대었네. |
| 高語虛皇聽 | 아름다운 소리 들려오는 빈 하늘에 |
| 平看列宿懸 | 별들이 떠 있음을 바로 보네. |
| 滄溟浮世界 | 세상은 넓은 바다에 떠 있고 |
| 白日下神仙 | 신선은 대낮에 내려오네. |
| 舊識棲塵末 | 오래토록 진애에 삶을 아나 |
| 回頭隔幾千 ¹⁵⁾ | 돌아보니 몇 천리나 멀어졌네. |

<登白雲峰頭>는 엄흔이 白雲峰 정상에 올라가 사방의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보고 감탄하여 지은 시이다. 앞 시 함련 下句에서 산의 정상에서 바라보는 수많은 봉우리들이 동쪽 하늘을 우뚝우뚝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을 의태어 '磅礴'이라는 險僻한 글자를 사용하여 奇字를 단련한 예를 볼 수 있다.

아울러 뒤의 시 함련 上句 제1자 '高'와 제4자 '皇' 자는 平易한 글자를 特異하게 사용하는 海東강서시파의 특징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앞의 시 미련 下句 제3자 '但' 자와 뒤의 시 수련 下句 제4자 '其' 자와 미련 下句 제4자 '幾' 자의 助辭를 사용하여 奇字를 단련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엄흔은 이처럼 <登白雲峰頭>에서 의태어를 표현할 때 險僻한 글자를 사용하고 平易한 글자를 특이하게 사용하고 助辭를 사용한 奇字의 단련으로 시의 산문적 어투를 강하게 하고 있다.

15) 엄흔, <登白雲峰頭>, 『十省堂集』上, 41쪽.

| | |
|----------------------|---------------------|
| 去日多徒侶 | 가는 날은 동무들이 많았으나 |
| 歸時我獨行 | 돌아올 때는 나 홀로 왔네. |
| 遙天雲片片 | 먼 하늘 구름은 조각조각 떠 있고 |
| 深谷鳥嚶嚶 | 깊은 계곡 새들은 재잘재잘 거리네. |
| 縱得還朝樂 | 마음대로 조정에 돌아와 좋아하니 |
| 其如別友情 | 아마도 각별한 우정 같다네. |
| 夜來新白髮 | 백발과도 친하여 밤이오니 |
| 箇箇憶君生 ¹⁶⁾ | 그대를 하나하나 생각하네. |

엄흔은 <寄演之 - 五月初二夜, 到宿良策館, 懷甚無聊, 臨行草呈> (5월 2일 저녁 양책관에 도착하여 잠을 자는데 마음이 몹시 무료하여 행초서로 시를 지어서 연지에게 부쳐주다)에서는 <登白雲峰頭>에서 보이지 않는 의성어를 표현할 때 險僻한 글자를 사용한 奇字의 단련을 보여주고 있다. 깊은 산속에서 들려오는 새의 울음소리는 의성어 '嚶嚶'이라는 險僻한 글자를 가져와 표현하고, 새처럼 즐거운 시인의 마음은 奇字의 단련을 통하여 독자에게 들려주고 있다. 한편 경련 下句에서는 '其' 자의 助辭를 사용한 奇字의 단련으로 시의 산문적 어투를 강하게 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章에서는 엄흔의 시에서 나타나는 拗體와 奇字의 단련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의 시 <次申宣慰韻>, <三月三日 次申宣慰韻>, <重遊成仲玉園林>, <身雖病而心自如, 非吟詠性情, 無以鐫除沈痛, 消遣長日, 復步親字韻, 呈大樹先生, 病中之懷, 君, 豈異於我哉>에서는 해동강서시과의 시가 拗體를 구사하는 것처럼 엄흔도 拗體를 구사하여 울격적인 면에서의 참신한 맛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登白雲峰頭>과 <寄演之 - 五月初二夜, 到宿良策館, 懷甚無聊, 臨行草呈>서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표현할 때 險僻한 글자를 사용하는 奇字

16) 엄흔, <寄演之 - 五月初二夜, 到宿良策館, 懷甚無聊, 臨行草呈>, 『十省堂集』 上, 76쪽.

의 단련과 함께 助辭를 사용한 奇字의 단련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근체시에서 보이지 않는 三平聲의 평측 배열은 해동강서시파 시의 특별한 拗體로 간주되는바 <次申宣慰韻>과 <三月三日 次申宣慰韻>에서 나타난 三平聲 평측 배열의 拗體는 엄흔이 해동강서시파의 범주에 있음을 재조명하는데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3. 시어의 확장

해동강서시파 시의 시어의 확장은 黃庭堅의 “以俗爲雅¹⁷⁾”의 논리인 비속한 표현을 시어로 인용하여 새로운 감각적 시어를 보여주고 있다.¹⁸⁾ 해동강서시파의 시인들은 시의 표현에 있어서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人名이나 地名 등의 고유명사를 시어로 사용하여 시어의 확장을 가져왔다.¹⁹⁾

따라서 해동강서시파의 시인들은 시의 표현에 있어서 아름다움이나 멋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감각이나 현상을 빠짐없이 나타내려고 하였다. 그들은 필요 없는 수식어를 피하면서 확실하고 섬세한 시어를 선택하였는데, 이러한 시어의 확장은 시의 의미까지 큰 변화를 주고 있다.

엄흔은 그의 시에서 주로 역사적 인물의 典故를 가져와 시어의 확장을 이루고 있다.²⁰⁾ 엄흔이 시어의 확장을 어떠한 형태로 가져와 어떻게 활용하고 시

17) “以俗爲雅 以古爲新 百戰百勝 如孫吳之兵 棘端可以破鏃 如甘蠅飛衛之射 此詩之奇也.” (黃庭堅, <再次韻并引>, 『黃山谷詩集注』 內卷, 권22)

18) 이종목은 해동강서시파의 시어의 확장 방법에 대하여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소설체의 용어나 잡극에서 볼 수 있는 용어,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성어나 속담, 민요의 말, 歇後語-속어의 일종으로 해학적이고 형상적인 어구-등을 즐겨 사용한다.”(이종목, 앞의 책, 74쪽 참조.)

19) “해동강서시파는 ‘以俗爲雅’나 ‘點鐵成金’의 논리를 주체적으로 변용하여 조선의 人名이나 地名을 시어로 구사하여 조선의 경물과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였다.”(이종목, 앞의 책, 79~88쪽 참조.)

20) 典故의 사용은 江西詩派 시의 ‘巖峯峻峭, 締思緻巧’의 특징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典故를 많이 사용한 黃廷彥의 시를 김종서는 그의 선행연구에서 “黃廷彥의 시는 궁벽하다.”

의 의미를 또 어떻게 확대하고 있는지 아래에서는 예시를 들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 | |
|------------------------|--------------------------|
| 鍾鼓嚴城報夜三 | 종소리가 삼엄한 성에 삼경을 알리는데 |
| 留連杯酒倚沈酣 | 연이은 술잔에 깊이 취하네. |
| 功名久覺子房足 | 공명은 오래 전 張良이 만족을 깨달았고 |
| 俗事元非中散堪 | 속된 일은 본래 嵇康이 감당할 일 아니었네. |
| 惱眼青春還是伴 | 마음의 눈은 청춘과 도리어 짝이 되니 |
| 困人黃嬾定誰戲 | 나른한 이의 낮잠을 정녕 누가 이기랴? |
| 臨風更寄登樓目 | 바람을 씌며 다시 누각에 올라 바라보니 |
| 雲氣遙連華岳南 ²¹⁾ | 구름 기운이 멀리 화악산 남쪽으로 이어졌네. |

엄흔은 <大同江舟中 - 復次前韻>의 함련 上句에서 西漢의 개국공신인 張良의 字인 ‘子房’으로 시어를 삼고 張良의 典故를 통하여 시어를 확장하고 있다. 엄흔은 漢高祖 劉邦을 도와 漢나라 창업에 힘쓴 책사로서의 張良이 韓信을 천거한 일의 典故에서 그가 공명에 만족하고 있음을 오래전에 깨달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함련 下句에서는 삼국시대 魏나라 嵇康을 일찍이 ‘中散大夫’라고 불렀는데, 이를 근거하여 嵇康의 別稱인 “中散”으로 시어를 삼고 시어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도 엄흔은 竹林七賢의 한 사람인 嵇康이 司馬氏의 정권에 대적한 일이나 그가 죽음을 앞두고 <廣陵散>의 曲을 古琴으로 연주하며 죽음을 맞이한 일의 典故에서 그는 인내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하였다.

엄흔은 이처럼 역사적 인물 張良과 嵇康의 典故를 통한 시어의 확장으로 자신의 마음을 더욱 넓히어 토로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미련 下句에서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선상에 있는 ‘華岳’ 山名을 시어로 삼고 시어를

라고 평가하였다.(김중서, 「芝川 黃廷彥의 삶과 시」, 『韓國漢詩研究』 第20輯, 韓國漢詩學會, 2012, 267쪽 참조)

21) 엄흔, <大同江舟中 - 復次前韻>, 『十省堂集』 下, 67쪽.

확장하여 景物과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해동강서시파의 또 다른 시어의 확장 방법에는 『詩經』이나 『書經』에서 다루고 있는 典故의 활용과 『論語』나 『孟子』같은 四書의 말을 그대로 시어로 가져와 한 문장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시어의 확장은 원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전환되어 사용됨으로써 작가가 묘사하려는 景物의 웅장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시의 의미를 확대하여 전개할 수 있다.

그러나 엄흔은 해동강서시파의 시어의 확장 방법과는 다른 前代 시인의 시에서 시어를 가져오는 시어의 확장으로 시의 의미를 전환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 | |
|------------------------|---------------------------|
| 鼎鼎光陰挽不回 | 빠른 세월은 당겨도 돌아오지 않고 |
| 眼中花信逐飛灰 | 눈 안에 꽃 소식은 날아가는 재를 쫓네. |
| 春殘苦被風吹盡 | 봄 다하여 바람이 다 불까 괴롭고 |
| 地遠元無鼓打開 | 땅은 멀어 원래 북으로 타개할 수 없다네. |
| 杜牧江湖須落魄 | 두목은 강호에서 응당 닛을 떨어트리고 |
| 劉郎衰白再歸來 | 유랑은 늙어서 다시 돌아왔네. |
| 東君有意勤相護 | 동군은 부지런히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으니 |
| 留向他時結好媒 ²²⁾ | 잠시 머물러 여느 때 마냥 좋은 중매 맺었네. |

엄흔은 <次申宣慰韻>의 경련 上句에서 중국 晚唐 前期의 시인 杜牧의 이름을 시어로 사용하는 시어의 확장을 가져오면서 杜牧의 시 <遣懷>에서 나오는 “한 때 실의하여 강호에서 술을 싣고 다니며²³⁾”에서 ‘落魄’의 시어를 가져와 시어를 확장하고 시의 원래의 의미를 전환하는 참신한 의경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경련 下句에서는 劉晨과 阮肇와의 古事 “劉郎番行²⁴⁾”에서 ‘劉郎’의 단

22) 엄흔, <次申宣慰韻>, 『十省堂集』 下, 70쪽.

23) “落魄江湖載酒,”(杜牧, <遣懷>, 『唐詩三百首』, 三民書局印行, 1999, 502쪽 참조.)

24) 漢나라 明帝 때 사람인 劉晨을 가리킨다. 阮肇와 함께 千台山에서 약초를 캐다가 길을

어를 가져와 시어를 확장하고 시의 의미까지 확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엄혼은 <次申宣慰韻>에서 해동강서시파의 시인이 四書의 말을 그대로 가져오는 시어의 확장 방법과는 다른 前代 시인의 시에서 시어를 가져오는 시어의 확장으로 시의 의미를 전환하였다. 따라서 前代 시인의 시에서 시어를 가져오는 엄혼의 시어의 확장 방법이 또 다른 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 | |
|------------------------|----------------------------|
| 狂點胸襟契聖丘 | 진취적인 증점은 홍금으로 공자와 의기투합하였는데 |
| 千年那復與進游 | 천년을 어찌 다시 함께 나아가 왕래하라. |
| 春思忽忽來無跡 | 봄에 생각은 갑작스레 오는 자취 없고 |
| 天序沍沍去不留 | 하늘의 차서는 빙빙 돌며 머무르지 않네. |
| 夢裏依稀三畝在 | 어렴풋한 꿈속에서는 세 이랑이 있고 |
| 人間奔沛萬夫求 | 패수에 달려가는 인간은 대중을 구하네. |
| 扶衰強欲酬登眺 | 노쇠한데 억지로 올라가 보고자하니 |
| 野草巖花處處愁 ²⁵⁾ | 들풀과 바위 꽃 곳곳마다 애처로워라. |

엄혼은 <春懷>의 수련 上句에서 孔子 제자 曾點이 어느 봄날 아동 5~6 명을 데리고 沂水에 가서 바람을 쐬고 오겠다는 『論語』 <先進篇> 曾點의典故를 사용하여 시어를 확장하고 있다. 또 그는 ‘狂點’, ‘聖丘’ 라고 하여 孔子와 曾點의 人名으로 시어의 확장을 가져와 시의 정서를 적합하게 하고 있다.

한편 경련 上句에서는 劉禹錫의 시 <金陵五題 - 江令宅>에 나오는 “연못가 누대와 대숲 삼무 쯤 되니, 지금 사람들은 강령의 집이라고 하네.²⁶⁾”에서 ‘三畝’의 시어를 가져오는 시어의 확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경련 下句에서는 『周易』 <繫辭傳> 下卷에서 공자가 말한 “군자는 작은 기미와 뚜렷함을

있고 仙界의 여인들을 만나 반년을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이미 수백 년 세월이 흘러 자기 7代孫이 살고 있었다. (『太平御覽』 卷41)

25) 엄혼, <春懷>, 『十省堂集』 下, 9쪽.

26) “池台竹樹三畝餘, 至今人道江家宅.”(劉禹錫, <金陵五題 - 江令宅>, 『全唐詩』 卷365)

알기 때문에 부드러움과 강함을 안다. 그러므로 만인이 우러러 받드는 것이다.²⁷⁾에서 ‘萬夫’의 단어를 가져와 시어의 확장을 통한 시의 참신한 의경을 확보하고 있다.

엄흔의 시 <春懷>와 <次申宜慰韻>에서는 前代 시인의 시에서 시어를 가져오는 시어의 확장 방법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어의 확장은 한편으로 시의 의미를 난해하게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의 의미를 확대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 | |
|------------------------|------------------------------|
| 夜雨無端送客悲 | 밤비가 끝없이 내려 나그네 슬픔을 보내는 마음 |
| 寒聲亂報暗窓知 | 찬 소리가 몰래 창문으로 어지럽게 알람을 알겠네. |
| 心丹天地蕭騷日 | 천지에 바람이 쓸쓸히 부는 날도 마음 변하지 않는데 |
| 鬢白江山搖落時 | 백발이 강산에 나뭇잎처럼 흔들리며 떨어지는 때이라. |
| 松菊久荒元亮徑 | 오래도록 황폐한 소나무 국화는 陶淵明의 오솔길이요 |
| 蘭茝空味屈平辭 | 헛되이 음미하는 난초와 향초는 屈原의 辭라네. |
| 明朝氣色應招恨 | 내일 아침은 응당 서글프리니 |
| 更有何人和我詩 ²⁸⁾ | 다시 누가 내 시에 화답할 이 있을까. |

엄흔은 <秋日示友人>의 함련 上句에서 宋나라 陸游의 시 <秋聲>에 나오는 “쓸쓸히 바람이 나무를 흔들며 마당을 지나가니, 사람 사는 어느 곳에 이리한 소리 있으랴.²⁹⁾”에서 ‘蕭騷’의 시어를 가져오는 시어의 확장으로 시의 정서를 적절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함련 下句에서는 杜甫의 시 <詠懷古跡五首> 其二에 나오는 “떨어지는 잎으로 송옥의 슬픔을 알고 풍류와 유사함은 나의 스승이네.³⁰⁾”에서 ‘搖落’의 시어를 가져오는 시어의 확장 형태가 보이고

27) “君子知微知彰，知柔知剛，萬夫之望。”(<繫辭傳>下，『周易』附諺解 貞，학민문화사，1990，453쪽 참조.)

28) 엄흔，<秋日示友人>，앞의 책，下，91쪽.

29) “蕭騷拂樹過中庭，何處人間有此聲。”(陸游，주기평 옮김，『陸游詩選』，지식을 만드는 지식，2011，67쪽 참조.)

30) “搖落深知宋玉悲，風流儒雅亦吾師。”(杜甫，<詠懷古跡五首 其二>，『唐詩三百首』，三民

있다.

경련 上句에서는 陶淵明의 <歸去來辭>에 나오는 “뜰 안에 세 갈래 오솔길에는 잡초가 무성하지만 소나무와 국화는 아직도 곳곳하다.³¹⁾”에서 ‘松菊’의 단어를 가져오고 이와 함께 陶淵明의 字 ‘元亮’의 人名으로 시어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련 下句에서는 屈原의 <離騷經>에 나오는 “난초와 지초가 변하고 향기롭지 않음이어! 향기로운 풀이 잡초가 되었네.³²⁾”에서 ‘蘭’과 ‘荃’을 가져오고 이와 함께 ‘屈平’의 人名으로 시어의 확장을 통하여 시의 분위기를 쓸쓸함으로 전환하고 있다.

엄혼의 시에서는 이와 같이 人名이나 前代 시인의 시에서 시어를 가져오는 시어의 확장으로 시의 참신한 의경을 확보하고 시의 의미까지도 넓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 |
|---------|---------------------------|
| 當春百草蓋地皮 | 봄이 되어 온갖 풀이 지면을 덮으니 |
| 競向艷陽何紛披 | 따스한 봄볕 다투며 꽃이 만발하네. |
| 攢青凝碧渾一色 | 푸른빛 모아 엉겨 혼일한 빛 |
| 貞操直節誰能知 | 정조와 곧은 절개를 누가 알랴. |
| 涼颿蕭瑟一夕至 | 하루 밤은 시원한 회오리바람 소슬하게 불어와 |
| 枝摧葉萎無復遺 | 남김없이 가지 꺾여 잎을 시들게 하였네. |
| 庭前一草立不改 | 뜰 앞에 풀 한 포기 선 자세 흐트러지지 않고 |
| 高操肯被風霜移 | 높은 지조로 즐겁게 서리바람 맞으며 움직이네. |
| 縱有震凌不我撓 | 벼락의 전율로도 나를 흔들리지 못하니 |
| 超然搖落無變衰 | 초연히 흔들어 떨어져도 변하고 쇠약함이 없네. |
| 回看衆草摠含羞 | 못 풀은 돌아보고 모두 수줍어하는데 |
| 況與蒲柳爭天時 | 하물며 갯버들과 천시를 다투겠는가. |
| 不有歲寒凝汨日 | 세한에도 얼어붙는 날 있지 않으며 |
| 無人識得凌風姿 | 바람을 능멸하는 자태 알아주는 이가 없네. |

書局印行, 1999, 370쪽 참조.)

31) “三徑就荒，松菊猶存.”(成百曉 역주, 『古文眞寶後集』, 전통문화연구회, 2000, 108쪽 참조.)

32) “蘭芷變而不芳兮，荃蕙化而爲茅.”(成百曉 역주, 앞의 책, 62쪽 참조.)

從來勁草自後凋 종래 억센 풀은 스스로 뒤에 마음을
 春風百卉休相欺³³⁾ 봄바람과 온갖 화훼는 업신여기지 마라.

엄혼은 <疾風知勁草>에서 『周易』 卷一 乾卦의 말 “하늘보다 앞서 하여도 하늘이 어기지 않고, 하늘보다 뒤에 하여도 하늘의 때를 받든다.³⁴⁾”에서 ‘天時’의 단어를 가져와 시어의 확장을 보여주고, 『論語』 <子罕> 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 “송백의 잎이 추위가 와도 뒤에 마른다.³⁵⁾”에서 ‘歲寒’과 ‘後凋’ 두 단어를 가져와 시어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疾風知勁草>에서 시어의 확장은 시의 景物 묘사를 웅장하게 하고, 시의 참신한 의경을 확보하였다.

엄혼은 이처럼 해동강서시파의 시에서 『詩經』이나 『書經』에서 다루고 있는 典故의 활용과 『論語』나 『孟子』같은 四書에 있는 말을 가져오는 시어의 확장 방법으로 모진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억센 풀처럼 자신의 굳센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한편 <疾風知勁草>에서는 ‘向’, ‘何’, ‘能’, ‘縱’, ‘況’, ‘從’ 등의 다양한 助辭를 사용한 奇字 단련으로 시의 산문적 어투를 더욱 강하게 하고 있다.

| | |
|---------|--------------------------|
| ① 大受吾隣伯 | 대수는 내가 친한 형인데 |
| 飄蓬嶺外村 | 영남 외촌에서 떠돌며 살았네. |
| 已甘居羣戶 | 이미 오두막집에서 달게 살며 |
| 長愧傍權門 | 권문세가 곁에 있음을 오랫동안 부끄러워하네. |
| 邑靜無科牒 | 마을은 고요하여 과거 첩지가 없고 |
| 時和有酒尊 | 계절은 온화하여 술동이만 있네. |
| 餘生差可樂 | 남은 인생 그런대로 즐거울만하니 |
| 隨分老田園 | 분수대로 전원에서 늙고 싶네. |

33) 엄혼, <疾風知勁草>, 『十省堂集』 上, 23쪽.

34) “先天而天弗違, 後天而奉天時.”(洪載坤 발행, 卷一 乾卦, 『周易』 附 諺解 元, 학민문화사, 1990, 363쪽 참조.)

35) “歲寒然後, 知松栢之後凋也.”(<子罕>, 『論語』.)

- ② 二年客京洛 두 해를 서울에서 객지생활 하니
 心與事全違 마음과 일이 온전하게 다르네.
 卿相多輕諾 재상은 경솔하게 허락한 일 많으나
 親朋少可依 친한 벗은 의지할 만한 일이 적네.
 微官無路取 미관말직도 취할 길 없어
 晚歲有田歸 늙그막에 전원으로 돌아가려 하네.
 收合生涯去 생활을 거두어 모아 가니
 咸陽一布衣 함양 고을 한 촌부라네.
- ③ 嶠外得書札 산길 밖에서 편지를 받아
 開緘愁萬端 열어보니 여러 가지 근심이네.
 悠悠道途阻 멀리 가는 길 험하고
 忽忽時序闌 문득 계절이 제멋대로네.
 嶺海相思苦 영해에서 서로 생각 괴롭고
 塵埃與面難 속세에서 함께 만나기 어렵네.
 期君營一命 당신의 말단관직 되기를 바라니
 早晚會長安 조만간에 서울에서 만나세.
- ④ 天南舊門客 영남에서 오랜 문객은
 悲札遠封來 슬픈 편지 멀리서 가져오네.
 已得傳雙淚 이미 두 눈물을 전하니
 何須酌一杯 어찌 한 잔의 제주 기다리랴.
 重泉嗟異路 아! 중천과 다른 길
 兩地謝同哀 두 지역에서 같은 슬픔 감사하네.
 泣盡羊曇血 눈물은 양담의 피를 다하니
 憑將雁足回 장차 소식 돌아오기를 의지하네.
- ⑤ 同遊白雲頂 함께 백운봉 정상에서 노닐며
 握手上天梯 손을 잡고 선경을 올랐네.
 天地滄溟闊 천하의 검푸른 바다는 넓고
 神仙紫鶴迷 신선의 붉은 학은 혼미하네.

相望人嶺嶠 높은 고개에서 서로 바라보고
 一別路東西 길을 동서로 한번 나누었네.
 名字鐫蒼壁 이름을 푸른 벽에 새기고
 何時覓舊題 어느 때에나 옛 시를 찾을까.

⑥ 憂患霜侵鬢 우환으로 살쩍에 서리 침범하니
 勞君遠問頻 멀리서 자주 문안하는 그대 위로하네.
 叩水今日淚 얼음을 두드리는 오늘의 눈물은
 負米昔年人 쌀을 등졌던 예전의 사람이라네.
 握粟求醫卜 곡식을 쥐고 의술과 점을 구하며
 稽頭乞鬼神 머리를 조아리고 귀신에게 비네.
 微誠天照鑑 작은 정성으로 하늘에 비추어 보고
 請以代吾身 내 몸을 대신하여 청하네.

⑦ 我友林同福 내 벗 임 동복 현감은
 牛刀試小邦 소 잡는 칼로 작은 나라를 시험하네.
 琴閑言偃閣 한가로이 거문고 켤 때 언은 합하를 말하고
 山對敬亭窓 산은 경정산의 창문을 바라보네.
 獨寫哦松韻 홀로 소나무소리 같은 운자로 시를 지어 읊고
 空餘滷酒缸 헛되이 술항아리를 적시네.
 須君一經過 그대 한 번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爲問俗淳龐³⁶⁾ 풍속이 순수함을 묻네.

위에 예시한 시³⁷⁾는 엄흔이 친한 형 盧禧³⁸⁾와 친구 林億齡과 서로 교우하

36) 엄흔, <盧君禧, 字大受, 居吾壙北. 嘗從我及林大樹, 遊三角山白雲峯, 爲飢寒所驅迫, 漂泊嶺南. 一至京師, 乞微官於卿相知者, 終不得, 戚戚還其舊居, 遠寄一書, 問吾親之病. 又悼妻祖父下世, 身遠無由一奠, 辭意悲切, 余以七律, 復其來使.>, 『十省堂集』上, 42~45쪽.

37) 필자는 예시한 시에 대하여서는 일상적 소재를 중심으로 보지 않고 典故의 활용에 중점을 두고 이 후에서 논의하였다. 그리고 논의의 이해를 보다 쉽게 하고, 전체 시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문단별로 띄어서 시를 구분하고 차례대로 번호를 붙여 보았다.

38) “盧禧 中廟進士.”(<咸陽郡篇>, 『嶠南誌』卷之五十九)

였던 일상생활을 소재로 하여 노래한 시이다. 시인은 세 사람의 평소 친분을 독자로 하여금 사실적이고 정감 있게 나타내려고 한 것 같다. 한편 이 시는 엄흔의 다른 시보다 긴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시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盧君禧，字大受，居吾壙北，嘗從我及林大樹，遊三角山白雲峯，爲飢寒所驅迫，漂泊嶺南。一至京師，乞微官於卿相相知者，終不得，戚戚還其舊居，遠寄一書，問吾親之病。又悼妻祖父下世，身遠無由一奠，辭意悲切，余以七律，復其來使。

(盧禧는 자가 大受로, 우리 집 담장 북쪽에 살았다. 일찍이 나와 林大樹를 따라 삼각산 백운봉을 유람한 적이 있는데, 춥고 굶주림의 괴로움을 못 견디고 영남을 떠돌아다녔다. 한번은 서울에 올라와 재상과 서로 아는 사람에게 미관말직을 부탁하였으나 끝내 얻지 못하자 서글퍼하며 고향으로 돌아갔다. 멀리서 편지를 보내왔기에 보니, 내 부모님의 병을 묻는 한편 처조부의 타계를 애도하며 자신은 멀리 있어 술 한 잔도 올리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말에 간절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내가 칠언율시를 지어 편지를 가져온 심부름꾼에게 다시 주어 보냈다.)

엄흔의 <盧君禧，字大受，居吾壙北，嘗從我及林大樹，遊三角山白雲峯，爲飢寒所驅迫，漂泊嶺南。一至京師，乞微官於卿相相知者，終不得，戚戚還其舊居，遠寄一書，問吾親之病。又悼妻祖父下世，身遠無由一奠，辭意悲切，余以七律，復其來使>는 시의 제목이 마치 짧은 편지의 일부분인 산문처럼 보인다. 게다가 이 시의 도입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웃집 형 盧禧의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시어를 확장하고 시를 서술하려는 시인의 마음을 볼 수 있다.

위의 시는 전반부에서 咸陽에 사는 盧禧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④ 단락의 시에서는 편지에 드러난 盧禧의 애도하는 마음을 『晉書』<謝安傳>에 나오는 謝安의 사위 羊曇의 典故와 漢나라 蘇武가 흉노족에 끌려가 소식을 기러기발에 묶어 보낸 典故를 통한 시어의 확장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⑥ 단락의 시에서는 일상적 故事成語와 典故, 『詩經』의 문장을 가져오는 시어의 확장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孟宗泣竹’의 故事成語는 눈 속에 죽순을 얻는 孟宗의 효도를 말한다. 그리고 ‘叩氷得鯉’의 故事成語는 얼음 속에서 잉어를

구하는 王祥의 효도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일상적 두 故事成語를 가지고 형 盧禧의 효성스러움을 말하면서 『孔子家語』卷二, <致思>에 나오는 子路의 典故³⁹⁾를 가지고 시인 자신의 孝心까지 드러내고 있다.

엄혼은 형 盧禧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詩經』, <小雅 小宛>에 나오는 ‘곡식 한 줌 쥐고서 점을 치고, 어디서부터 하면 좋을까?’⁴⁰⁾에서 ‘握粟’ 시어를 가져와 시어를 확장하고, 시의 의미를 천지신명이 도와주어 흥함을 없애고 복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있다.

⑦ 단락의 시에서는 그의 친구 임억령은 전남 화순 동복의 고을 현감으로 나가 백성을 다스렸다. 엄혼은 친구가 고을을 다스리는 일상의 이야기를 『論語』, <陽貨>편 4장에 나오는 “공자가 무성에 가서 현을 타며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빙그레 웃으며 닭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랴⁴¹⁾”에서 ‘牛刀’의 단어를 가져와 시어를 확장하고, 시의 의미를 전환하여 시의 정서를 적절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본 章에서는 엄혼의 시에서 나타나는 해동강서시파 시의 특징으로 시어의 확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의 시 <大同江舟中 - 復次前韻>에서는 張良과 嵇康의 典故를 통한 시어의 확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次申宣慰韻>, <春懷>, <秋日 示友人>, <疾風知勁草>, <盧君禧, 字大受, 居吾塙北, 嘗從我及林大樹, 遊三角山白雲峯, 爲飢寒所驅迫, 漂泊嶺南. 一至京師, 乞微官於卿相知者, 終不得, 戚戚還其舊居, 遠寄一書, 問吾親之病. 又悼妻祖父下世, 身遠無由一奠, 辭意悲切, 余以七律, 復其來使>에서는 『詩經』이나 『書經』에서 다루고 있는 典故의 활용과 『論語』나 『孟子』같은 四書의 말을 그대로 시어로 가져오는 시어의 확장 방법으로 시의 의미를 전환하는 형태가 두루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39) “仲由 字子路, 孔子弟子. 事親至孝, 家貧, 食藜藿之食, 爲親負米於百里之外. 親歿之後, 南遊於楚, 從車百乘, 積粟萬種, 累茵而坐, 列鼎而食. 乃歎曰: 雖欲食藜藿之食, 爲親負米, 不可得也. 孔子聞之曰: 由也, 可謂生事盡力, 死親盡思者也.”(<致思>, 『孔子家語』卷二)

40) “握粟出卜, 自何能穀.”(<小雅 小宛>, 『詩經』.)

41) “子之武城, 聞弦歌之聲, 夫子, 莞爾而笑曰 割雞焉用牛刀.”(<陽貨> 제4장, 『論語』.)

특히 엄흔의 시에 나타나고 있는 前代 시인의 시에서 시어를 가져와 시의 의미를 전환하여 참신한 의경을 확보하는 그 만의 시어의 확장 방법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4. 시의 산문화

宋代 江西詩派가 唐詩에 比하여 시인의 개인생활과 더욱 가까운 내용으로 산문적 시⁴²⁾를 지향한 것처럼 海東강서시파 역시 산문적인 시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海東강서시파 시인들은 특별한 감정이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보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작은 일까지 세밀하게 시로써 노래하고 있다. 이러한 일상생활의 일은 海東강서시파 시의 소재로서 그들의 감각에 의하여 산문화된 시로 다시 태어나 흥미를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海東강서시파 시인들은 산문적인 시를 지향함으로 시의 작법에서 美辭麗句나 神妙한 시어를 추구하지 않고 倒置된 句文을 사용하여 語勢를 강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본고는 이와 같은 海東강서시파 시의 산문화가 엄흔의 시에서는 어떠한 모양으로 서술되고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 | |
|-------|----------------------|
| 客裏逢人少 | 객중에서 만나는 사람 적으니 |
| 行行意謾傷 | 가도 가도 부질없이 마음 아프네. |
| 塞天雲斷續 | 변방의 하늘 구름은 끊어졌다 이어지고 |
| 關路馬玄黃 | 변방 가는 길의 말은 검고 누르네. |
| 直北星辰遠 | 북쪽에서 만나는 별 멀어지고 |
| 征西道里長 | 서쪽으로 가는 길 길어지네. |

42) “宋人 以文爲詩.”(吳喬, 『圍爐詩話』.)

空餘書劍在 헛되이 책과 칼이 남아 있으나
 時復耀精芒⁴³⁾ 이따금 날카로운 빛이 비치네.

엄흔의 <大同江舟中 - 復次前韻>은 平聲韻字 30자 중 下平聲 7번째 ‘陽’의 韻字를 사용한 <次申宣慰韻>의 韻字를 재차 사용한 시이다. 엄흔은 대동강에서 뱃놀이하며 객지생활의 고달픔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려고 이 시를 지었다.

본고는 엄흔의 시에서 시의 산문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大同江舟中 - 復次前韻>에서 보이는 일상적 이야기의 소재를 가지고 시의 형식이 아닌 산문의 형식을 빌려 다음처럼 기술하여 보았다.

객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적고 낯설어 길을 가도 가도 부질없이 마음만 아팠다. 변방의 하늘에 구름은 한가로이 이어졌다가 끊어지고 한산한 길을 가는 수레의 말은 검고 누렇다. 내가 고향을 떠나와 북쪽 객지에서 만나는 밤하늘의 북두칠성이 한 뼘씩 움직일 때 마다 고향과의 거리는 자꾸만 멀어져 갔다. 이러한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공무를 보는 책상에는 무심한 달빛이 때때로 칼과 책을 비추어 빛나고 있다.

엄흔은 이와 같이 객지생활의 고달픔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자연스럽게 말 하려고 일상생활 이야기를 시의 소재로 삼아 이야기나 일기를 쓰듯 시를 산문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 | |
|---------|------------------------------|
| 誰將長笛動龍眠 | 누가 긴 피리 불며 용의 잠을 깨우는가 |
| 忽有驚濤洒舞筵 | 문득 성난 파도 춤 자리를 덮치네. |
| 洗滌胸懷杯盞灑 | 가슴에 품은 생각 씻으려 술잔만 넘쳐나고 |
| 留連賓主鼓淵淵 | 주인과 손님은 떠나지 못하고 북소리만 동동 울리네. |
| 望鄉路隔三千里 | 고향을 바라보니 길은 삼천리나 멀어지고 |

43) 엄흔, <大同江舟中 復次前韻>, 『十省堂集』上, 70쪽.

橫槩詩成一百篇 말 위에서 시 백 편을 지었다네.
 醉裏回頭天地小 취중에 천하가 작음을 돌아보고
 不知身在海西邊⁴⁴⁾ 내가 서쪽 변방 바다에 있음을 모르네.

엄혼은 <遊九龍淵 次申宣慰韻>에서 종사관으로서 연일 계속되는 바쁜公務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소재로 시의 산문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遊九龍淵 次申宣慰韻>의 頷聯에서는 남쪽 고향을 떠나와 사신단 일행을 접대하려는 원접사 일행인 주인과 중국 고국을 떠나 압록강을 건너온 사신단 일행의 손님은 차마 서로 이별한다고 말을 못하고 술잔의 수만 채우고 있다. 頸聯에서는 서로 고향을 떠나오고 고국을 떠난 길이 각각 삼천리나 멀어지니, 말을 타고 돌아다니며 지은 시만 일백 편을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尾聯에서는 취중에 천지가 작음을 돌아보면서도 자신이 서쪽 변방 바다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근체시 五言詩에서는 2-3, 혹은 3-2, 七言詩에서는 4-3, 혹은 2-2-3의 句法으로 읽혀진다. 그러나 해동강서시파의 시 五言詩에서는 1-4, 七言詩에서는 2-5, 혹은 2-3-2의 句法을 변화하여 시의 산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엄혼의 <遊九龍淵 次申宣慰韻>의 句法을 자세히 살펴보면, 경련에서 종사관으로서의 바쁜公務의 모습 ‘望鄉 / 路隔三千里. 橫槩 / 詩成一百篇’(고향을 바라보니 길은 삼천리나 멀어지고 말 위에서 시 백 편을 지었다네.)-을 七言詩 2-5의 句法 변화로 시를 산문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4) 엄혼, <遊九龍淵 次申宣慰韻>, 『十省堂集』 下, 81쪽. 申光漢의 原詩는 아래와 같다. “幽憂悄悄擁衾眠, 聞道諸公集盛筵. 花色滿時三月暮, 江流深處九龍淵. 天涯光景應無主, 筆下珠璣定幾篇. 風送笛聲時入枕, 起憑危檻夕陽邊.”(申光漢, <病在抱州客館聞諸公遊九龍淵書懷奉呈時百花始發>, 『企齋集』 卷之四 詩, 한국문집총간 제22집, 287쪽.) “龍公此日但貪眠, 江上能容設錦筵. 曾說雲煙藏古塞, 每看雷雨起深淵. 已令葛澤須君杖, 應許春潮要我篇. 自是老來多病數, 任教行樂在他邊.”(申光漢, <復次諸公遊九龍淵之韻以答來意>, 같은 책, 287쪽.)

| | |
|----------------------|------------------------|
| 我聞柳生名 | 나는 류 선생의 이름을 들었으나 |
| 而不一相見 |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였네. |
| 思之歲月多 | 생각해보면 세월이 많이 흘러서 |
| 飄泊同花片 | 꽃잎처럼 흩날려 지나버렸네. |
| 邂逅開城館 | 개성관에서 만나니 |
| 情深舊識面 | 오랜 안면으로 정이 깊었네. |
| 借問何所業 | 무슨 일을 하는지 물으니 |
| 自少親筆硯 | 어려서부터 붓과 베풀 친하다고만 하네. |
| 書法得公權 | 서법은 공권력을 얻어 |
| 字字精百鍊 | 글자마다 백 번의 담금질로 정밀하네. |
| 宦路妨煥赫 | 벼슬길에서 빛나는 것은 해로우나 |
| 陸沈向槐院 | 은거하면서도 승문원을 향하네. |
| 絕絃古所悲 | 거문고 줄을 끊음은 예로부터 슬프니 |
| 抱玉難自銜 | 덕을 안고 스스로 자랑하기 어렵네. |
| 仕有爲祿者 | 벼슬함에 봉록을 위한 자 있으나 |
| 卑官君勿賤 | 낮은 벼슬을 그대는 천하게 여기지 말라. |
| 聞君構小堂 | 그대가 작은 집을 지어 |
| 藏書數千卷 | 수천 권을 보관한다고 들었네. |
| 此是安樂地 | 이곳은 안락한 땅이니 |
| 輕肥非我羨 ⁴⁵⁾ | 사치한 생활은 나의 부러움 아니라네. |

엄혼은 <題安樂堂柳耳孫詩卷>의 도입부분 “我聞柳生名，而不一相見。思之歲月多，飄泊同花片.”(나는 류선생의 이름은 들어 보았지만 만나지 못하였다. 꽃잎이 쌓여 있는 것처럼 세월이 많이 흐름을 생각하면)에서 해동강서시파 시의 특징인 連詞 ‘而’ 자와 ‘之’ 자를 시어로 사용한 시의 산문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連詞 ‘之’ 자를 시어로 사용한 시의 산문화의 모습은 朴闇의 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⁴⁶⁾

45) 엄혼, <題安樂堂柳耳孫詩卷>, 『十省堂集』 上, 30쪽.

46) “平生病眼怯遐矚，尋丈之間殊不分。”(朴闇, <營後亭子>, 『挹翠軒遺稿』, 한국문집총간 제21집, 44쪽.)

한편 <題安樂堂柳耳孫詩卷>에서는 ‘나는 들었다(我聞)’에서 시작하여 ‘나의 부러움은 아니다(非我羨)’로 끝나는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시의 소재로 삼고 있다.

엄혼은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우연히 開城館에서 만난 柳先生과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엄혼은 이처럼 讀者에게 쉽게 이야기를 들려주듯 일상생활의 소재로 시의 산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 | |
|----------------------|-----------------------|
| 金生何太朴 | 김생원은 어찌 그리 소박하는가? |
| 貌古心又古 | 고인을 닮아 마음 또한 고인답네. |
| 肘後有良方 | 주후라는 좋은 처방책이 있으니 |
| 和扁乃其祖 | 화와 편작은 바로 그의 조상이라네. |
| 與我晚相遇 | 나와 늦그막에 서로 만나 |
| 從事於旅寓 | 객지 숙소에서 일을 하였네. |
| 往回數千里 | 가고 돌아오기를 수 천리 |
| 略見肝與腑 | 대략 마음을 보네. |
| 勤謹性則然 | 부지런하고 조심하는 성품이 곧 그러하니 |
| 奔走顏無忤 | 분주하여도 얼굴에 거역한 빛이 없었네. |
| 我本不能書 | 나는 본래 글을 잘 쓰지 못하여 |
| 下筆混魚魯 | 붓을 잡고서 어와 노를 혼동하네. |
| 詩成使爾寫 | 시는 네게 써서 이루게 하니 |
| 颯颯生風雨 | 세차게 비바람이 생기듯 하였네. |
| 離合安可常 | 모였다가 흩어지는 일이 어찌 떳떳하라. |
| 紛紛雲散聚 | 어지러운 구름 흩어지고 모이는데. |
| 還朝我方樂 | 조정에 돌아온 나는 즐겁고 |
| 留滯爾多苦 | 머물러 있는 너는 고충 많네. |
| 他時十省堂 | 여느 때처럼 십성당은 |
| 一笑傾清醕 ⁴⁷⁾ | 맑은 술을 따라 한번 웃으려네. |

47) 엄혼, <贈金生彥彬>, 『十省堂集』上, 29쪽.

엄흔의 시에서 나타나는 시의 산문화는 <贈金生彦彬> 贈詩에서도 그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엄흔은 金彦彬의 古人다운 소박한 삶의 일상생활 이야기를 시의 소재로 삼고 시의 산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金彦彬의 소박한 성품을 古人에 비유하고 그가 의사라는 일상적인 직업을 고대 名醫였던 和와 扁鵲을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엄흔은 金彦彬과 우연히 객지에서 만났다가 헤어지는 과정을 담담하게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객지에 홀로 남아 있는 金彦彬을 염려하면서 그리워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一笑傾清醕.”(맑은 술을 따라 한번 웃어본다.)라고 시를 마치면서 혼잣말을 하고 있다.

엄흔의 <贈金生彦彬> 贈詩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題安樂堂柳耳孫詩卷> 題詩처럼 시의 도입부분에서 이야기를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여 일상생활을 시의 소재로 삼아 시의 산문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贈金生彦彬> 贈詩에서는 ‘肘後’, ‘和’와 ‘扁鵲’, ‘十省堂’ 등 冊名과 人名을 사용한 시어의 확장으로 시의 景物과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章에서 살펴본 엄흔의 시에서 나타나는 시의 산문화 형태는 <大同江舟中 - 復次前韻>과 <遊九龍淵 次申宣慰韻>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일상생활을 시의 소재로 삼은 시의 산문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題安樂堂柳耳孫詩卷> 題詩와 <贈金生彦彬> 贈詩에서는 시의 도입부분에서 이야기 형식을 취하는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시의 소재로 삼고 시의 산문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遊九龍淵 次申宣慰韻>에서는 七言詩 2-5의 句法의 변화로 산문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맺음말

본고는 지금까지 36세의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문학적 찬사를 받은 嚴旼의 『十省堂集』의 시에서 나타나는 형식적 특징이 16세기 전후 韓國 漢詩史에서 활발한 창작활동을 전개한 海東江西詩派의 시의 특징과 연관된바 그 연관성이 서로 동일한 범주에 있음을 고찰하여 보았다.

특히 엄흔이 해동강서시파 시인의 범주에 있는 企齋 申光漢의 시를 차운한 次韻詩를 비롯한 그의 시에서는 해동강서시파 시의 일반적인 특징 중에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拗體와 奇字의 단련, 시어의 확장, 시의 산문화는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실하게 갖추고 있었다.

엄흔은 <次申宣慰韻>, <三月三日 次申宣慰韻>, <重遊成仲玉園林>, <身雖病而心自如, 非吟詠性情, 無以蠲除沈痛, 消遣長日, 復步親字韻, 呈大樹先生, 病中之懷, 君, 豈異於我哉>에서 해동강서시파의 시가 拗體를 구사하는 것처럼 拗體를 구사하여 울격의 면에서 참신한 맛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登白雲峰頭>와 <寄演之 - 五月初二夜, 到宿良策館, 懷甚無聊, 臨行草呈>에서는 해동강서시파의 시에서처럼 助辭를 사용하고 險僻한 글자를 사용하는 奇字의 단련이 함께 보이고 있다. <登白雲峰頭>에서는 의태어를 표현할 때 險僻한 글자를 사용한 奇字의 단련을 보여주었고, ‘但’, ‘其’, ‘幾’ 자의 助辭를 통한 奇字의 단련과 함께 ‘高’ 자와 ‘皇’ 자의 平易한 글자를 특이하게 사용하는 형태도 보여주었다. <寄演之 - 五月初二夜, 到宿良策館, 懷甚無聊, 臨行草呈>에서는 의성어를 표현할 때 險僻한 글자를 사용한 奇字의 단련은 물론 ‘其’ 자의 助辭를 사용한 奇字의 단련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근체시에서 보이지 않는 三平聲의 평측 배열은 해동강서시파 시의 특별한 拗體로 간주되는데 <次申宣慰韻>과 <三月三日 次申宣慰韻>에서 보여준 三平聲 평측 배열의 拗體는 그가 해동강서시파의 범주에 있음을 재조명하는데 있어서 주목할 만하였다.

엄흔의 <大同江舟中 - 復次前韻>에서 보이는 張良과 嵇康의 典故를 통한 시어의 확장과 <次申宣慰韻>, <春懷>, <秋日 示友人>, <疾風知勁草>, <盧君禧, 字大受, 居吾墻北, 嘗從我及林大樹, 遊三角山白雲峯, 爲飢寒所驅迫, 漂泊嶺南. 一至京師, 乞微官於卿相相知者, 終不得, 戚戚還其舊居, 遠寄一書, 問吾親之病. 又悼妻祖父下世, 身遠無由一奠, 辭意悲切, 余以七律, 復其來使>에서 보이는 『詩經』이나 『書經』에서 다루고 있는 典故의 활용 및 『論語』나 『孟子』같은 四書의 말을 그대로 시어로 가져와 시어를 확장하고 人名이나 地名을 사용하여 시어를 확장하고 있는 형태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엄흔의 시에서는 海東강서시파가 『論語』나 『孟子』같은 四書의 말을 그대로 시어로 가져와 시어를 확장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前代 시인의 시에서 시어를 가져와 시어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시의 의미를 전환하여 참신한 의경을 확보하고 있었다.

엄흔의 <大同江舟中 - 復次前韻>과 <遊九龍淵 次申宣慰韻>에서는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시의 소재로 삼고 시의 산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遊九龍淵 次申宣慰韻>은 海東강서시파 시에서 즐겨 사용하는 句法の 변화로 七言詩 2-5의 句法 변화로 시를 산문화하고 있다. 또한 <題安樂堂柳耳孫詩卷> 題詩와 <贈金生彦彬> 贈詩에서는 시의 도입부분에서 이야기를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여 일상생활을 시의 소재로 삼은 시의 산문화된 형태가 드러나고 있다.

본고에서 논의한 海東강서시파 시의 범주 안에서 엄흔의 시에서만 나타나는 시의 형식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엄흔은 그의 시에서 의성어와 의태어를 險僻한 글자로 표현하는 奇字의 단련과 拗體에서 三平聲 평측 배열의 拗體를 구사하였다.

둘째, 엄흔은 그의 시에서 역사적 인물의 人名 및 典故와 함께 前代 시인의 시에서 시어를 가져오는 시어의 확장 방법으로 시의 의미를 전환하여 시의 참신한 의경을 확보하였다.

셋째, 엄흔은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시의 소재로 삼고 시의 산문화를 구체적

으로 형태화 하였다.

본고는 지금까지 고찰한 논의에서 엄흔의 시에 나타나는 해동강서시파의 특징을 종합하여 볼 때 엄흔이 韓國漢文學史에서나 海東江西詩派 시인의 범주에서 재조명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周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엄흔이 韓國漢文學史에서나 해동강서시파의 범주에서 재조명되기 위해서는 선행 되어야 할 많은 연구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엄흔의 시인으로서의 삶을 조명하고 그의 시에서 나타나는 단순한 형식적 특징이 아닌 내용상 및 문학적 특징을 규명하는 과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본고에서 다루어진 인용시가 과연 해동강서시파의 특징을 충분한 조건으로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보다 더 심화된 학습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반 논의는 본문에서 언급하지 못하였지만 후속 연구를 통해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周易』附 諺解 元, 학민문화사, 1990.
 『周易』附 諺解 貞, 학민문화사, 1990
 嚴昕, 『十省堂集』
 朴間, 『挹翠軒 遺稿』, 한국문집총간 제21집, 1988.
 申光漢, 『企齋集』, 한국문집총간 제22집, 1988.
 吳喬, 『圍爐詩話』
 黃庭堅, 『黃山谷詩集註』 內卷22.
 邱變又 注譯, 『唐詩三百首』, 三民書局印行, 1999.
 成百曉 역주, 『古文眞寶後集』, 傳統文化研究會, 2000.
 陸游, 주기평 옮김, 『陸游詩選』,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1.
 許筠, 『國朝詩刪』, 아세아문화사, 1980.

2. 논저

- 권혁명, 「十省堂 嚴昕의 詩世界」, 『東洋古典研究』 第49輯, 東洋古典學會, 2012,
 138쪽 및 140쪽.
 (G704-001739.2012..49.009)
 김중서, 「芝川 黃廷彥의 삶과 시」, 『韓國漢詩研究』 第20輯, 韓國漢詩學會, 2012,
 267쪽.
 (G704-000619.2012..20.003)
 김태준, 「朝鮮文學史」, 『朝鮮語文叢書』, 朝鮮語文學會, 1931.
 민병수, 「朝鮮前期의 漢詩研究」, 『漢文教育研究』 第1輯, 韓國漢文教育學會, 1986,
 57쪽.
 이가원, 『韓國漢文學史-韓國漢文學思潮研究』, 보성문화사, 2005.
 이종목, 『海東江西詩派研究』, 太學社, 1995.
 조희창, 「蘇齋 盧守愼의 詩文學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정재현, 「企齋 申光漢의 研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Abstract |

Characteristics of sect of poem of Haedong-Gangseo to appear Eom Heun's poem

Eom, Chan-young

In the 16th century Joseon literary world, the poets such as Park Eun(朴闇), Lee Haeng(李荇), Jeong Sa-ryong(鄭士龍), Noh Susin(盧守愼) formed 'a sect of poems in Haedong Gangseo(海東江西詩派)', and wrote poems. At that time, a man named Eom Heun(嚴昕) lived a short life of 36.

In the spring of 1539, Ming dispatched envoys to Joseon to mark the birth of the crown prince, and immediately dispatched the envoy to tell the investiture of Crown Prince in May.

At that time, Eom Heun was the secretary of So Se-yang(蘇世讓) and sunwesa Sinkwangan(宣慰使 申光漢) who greet envoy to the Ming Dynasty. He wrote poem that bringing a rhyming word from poem which envoy and groups of greeting envoy sent poems with each other. These works occupy most of the collection of poem. Name is 『sipseongdangzip(十省堂集)』.

His poetry was praised by people at the time but they are not in a prominent position in today's Korean poem history. His poem that bringing a rhyming word from poem(次韻詩) easily be found the characteristics of a sect of poem of Haedong-Gangseo that flat sound of three things(三平聲) in Yo-che(拗體), odd word training through an auxiliary word, extension of poetic word through the name and the past with linguistic grounds典故, the prose conversion of poetry with material for life.

His poems need to be included in the categories of poets of Haedong Gangseo, whose poems faithfully the characteristics of poems of Haedong Gangseo.

Key words : a sect of poem of Haedong-Gangseo(海東江西詩派), poem that bringing a rhyming word from poem, flat sound of three things(三平聲), the past with linguistic grounds(典故), the prose conversion of poetry

투고일 : 2017년 7월 11일 심사기간 : 8월 2일 - 8월 15일 게재확정일 : 8월 16일

www.kci.go.kr